

'김치 담그기' 무형문화재 지정

〈국가〉

문화재청, “공동체 정신 외 자연-인간 조화” 등 배경 설명
특정 보유자·단체 인정 않기로



문화재청이 '김치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열린 가운데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공동체 음식문화 '김치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치 담그기'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김장문화'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김치 담그기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문화다. 문화재청은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고 현대 사회까지 지속된다는 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는 점, 세대 간 전승에 모든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

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식생활관습인 '김치 담그기'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펼쳐 '김치 담그기'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

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생활관습·놀이와 의식 등은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청춘에게 들려주는 '인생'

고미숙 작가 초청 인문학 콘서트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16일 오후 5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고미숙 작가를 초청해 '한번쯤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생나눔교실의 호남권 기획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고전평론가로 활동 중인 고미숙 작가의 '이시대의 청춘들에게'라는 주제의 강연과 '여자로 보여'라는 곡으로 유명한 싱어송 라이터 후니아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열하일기, 생각수업 등 다수의 책을 통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미숙 작가는 자신의 인생 멘토인 연암의 이야기와 함께 이 시대 청춘들에게 다양한 인생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강연은 인문정신문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은 물론 콘서트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인문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어른세대와 아랫세대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

/정해은 기자

수능 끝난 당신... 뮤지컬보러 떠나라

소리문화전당 '캣츠' 내달 3일 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트숍 탐험대' 일환으로 그간 전당은 매월 중·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 단순한 공연관람에서 벗어나 작품과 연계한 다양한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공연 관람 작품은 12월 3일 오후 2시 오막에서 진행될 뮤지컬 '캣츠'다.

'캣츠'를 관람하기 전날인 2일 사전교육을 통해 뮤지컬 제작과정과 공연관람 예절, 장면 만들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오는 17~27일까지 참가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한다. 기초수급가구 등 소외 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전화(063-270-7841·7875)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scri21.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2018 전주시네마펀드 프로젝트 공모 29일까지 진행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가 2018 전주시네마펀드의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전주시네마펀드는 저예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한국 영화 산업 주체들과 함께 매년 1억 원을 공동 조성하여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두 부문

으로 나눠 모집한다. 극영화 부문은 제작비 4억 원 이하의 저예산 장편영화 기획을 대상으로 하며, 초고 이상의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큐멘터리 부문은 제작 진행 상황이 70% 이상의 기획물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시네마펀드의 프로젝트 지원자 수는 연간 10편 내외로 선정되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고르게 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수한 기획물은 전주국제영화제의 투자와 제작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펀드 프로젝트(JCP)'로 선정, 1억 원의 투자를 받아 제작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신인과 기성 모두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 신청은 전주프로젝트마켓 홈페이지(jpm.jiff.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제10회 전주프로젝트마켓은 2018년 5월 6~8일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깊어가는 가을, 열매맺는 우리'... 전북도립여성중고 학습발표회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유진순)는 '깊어가는 가을, 열매맺는 우리'라는 주제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2017학년도 학습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학습발표회는 학생들이 13개 정규교과목 수업 시간 이외에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틈틈이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로, 다채로운 공연과 작품이 전시된다.

이들 학생들은 고전극을 현대적 감성으로 각색하여 코믹하게 연출한 '신 흥부놀부전'와 '코믹 공쥐팔쥐'를 비롯해 다양한 춤과 노래를 뽐낼 장기자랑 한마당잔치, 아이들을 넘어설 signa 댄스 등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교과 실습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미술의 도자컵(캘리그래피), 과학의 아로마비누, 기술가정의 파우치 그리고 가슴 찡찡한 감동을 자아낼 사연들을 담은 백일장작품, 작품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예작품 및 한식조리식품 등 학습과정과 연계된 작품들도 선보인다.



유진순 교장은 "일찍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여성들에게 평생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올해로 개교 19년(1998.3.9일 설립)을 맞이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규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국에선 유일하게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을 모집 중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고즈넉한 여유가 있는 명품 한옥으로 떠나는 '가을 힐링 여행'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컨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컨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칭이 공경이다 훈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멋이 느껴집니다. 코끝에 닿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남원시